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상상력

도시와 인간

시설

혁신도시 2012년 말 완공 물 건너 가나

정부가 공언해왔던 '2012년 혁신도시 준공' 약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이전 시점을 2012년 말에서 2014년 이후로 연기한 때문이다. 또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등 10개 기관은 건축허가조차 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국토해양부가 정해준 대로 2012년 말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2014년에나 입주할 것으로 알려져 이중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 회사는 지방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이전 연기를 공식화하는 이전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한편과 자회사들의 이중성으로 볼 때 정부나 지방의 눈치를 보면서도 굳이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심산이 다분하다. 한편KPS, 한전KDN 등은 아직까지 입찰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도 한전과 자회사들의 공사가

'전국 최고' 광주공항 소음 이대로 둘 건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소음은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런 맥락에서 광주공항이 전국에서 소음이 가장 심하다는 조사 결과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공항 평균 소음은 83.87데시벨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광주공항의 송대동과 우산동 지역은 이미 소음 피해가 나타나는 90데시벨 이상을 기록했다. 광주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광주공항의 소음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대화·전화·TV 및 라디오 청취에 방해받고 있으며 학습 및 수면 방해는 물론 작업능률 저하·불쾌감·불

無等鼓

"우리집 오빠들 셋은 우골탑으로 공부 부러웠다/ 암소가 새끼를 낳고 젖을 때면 송아지가 팔려갔다/ 어미소는 몇 날 며칠을 울며 울며 울었다 /나도 어미소 따라 같이 울었다/ 차마 그 눈은 마주하지 못하고/ 속으로 울었다" 김은영의 동시 '닭들에게 미안해'에 나오는 우골탑(牛角塔)은 대학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다. 대학 진학이 드물었던 1970년대 소를 팔아 자식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던 시절의 이야기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1978년 한우 1마리 가격은 평균 58만8000원인데 반해 국·공립대학 연간 등록금은 5만~11만4000원이었다. 소 값이 등록금의 5.2배에서 11.8배에 달해 소 한마리 팔면 어렵지 않게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동시에 등장하는 것처럼 세명이나 대학을 보내면서도 1년에 한번 꼴로 송아지 한두 마리만 팔면 문제없이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30년 동안 소 값은 6.6배 오른

미친 등록금

달하는 사립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다보니 정작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이 이슈화되고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촛불집회에 나서고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고등교육인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사회복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가는 현실에서 불매 미친(?) 등록금은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옥죄는 문제가 됐다. 이제는 등록금이 사립이든 불매 쌓아 버리는 상아탑시대는 가야 한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에너지 자립 '녹색섬'

이랜드에도 도서 내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축전기와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녹색섬 조성에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울릉도에는 태양광, 풍력, 폐기물, 지력, 수력 등이 바로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난 1999년에 설치된 600kW급 풍력발전기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디젤발전을 운영하는 기업과 계통연계라는 전기적 특성을 무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울릉도 녹색섬 토론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풍력이 직접적인 계통연계가 어려운 경우 발전된 전력을 수전해 설비를 설치하여 수소를 만들고 부하가 집중되는 시간에 연료전지를 운전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녹색섬의 피크 부하 시간대나 전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관광철에는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용천수를 활용한 수소발전도 울릉도의 기저부하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추산 용천수는 일일 평균 약 2만 정도이며, 이 중에서 추산 수력발전소의 발전용수로 9000t,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용수로 1000t 정도 사용되며 나머지 1만 정도는 바다로 흘러보내게 된다. 설비를 개선하여 수력발전 용량증설도 가능한 대목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도서지역에 하이브리드시스템인 풍력-디젤-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나 풍력-태양광-디젤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연구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의 펀드랜드나 덴마크의 톨랜드 지역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약 3000여개의 섬이 있으며 이중 자가발전 도서는 128개다. 전남에도 자가발전도서가 69곳이어서 녹색섬을 조성할 충분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화석연료 고갈은 디젤발전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원자력발전은 잦은 사고 여파로 미래에너지로 각광받기 어렵다. 미래에너지로 상업성을 갖춘 것은 단연 신재생에너지이다. 전남도의 경우 자가발전 도서 이외에도 약 1900여개의 유무인도가 산재하여 활용 가능성이 더욱 크다. 무인도에 풍력기를 설치하고, 수전해를 통한 수소를 생산하여 유인도로 운송하고 연료전지를 구동하는 패턴을 갖추면 화석연료를 사용한 디젤발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강수가 부족한 경우 수전해에 의한 수소담수사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청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최근 연육교가 설치된 신안

군 증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확대 이용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연진자동차 방면객의 자동차는 출입지역에 주차하고 섬지역은 전기자동차로 운영하는 이 방안은 슬로시티와 더불어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더 없이 좋은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울릉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녹색섬 조성을 위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민간기구인 국제녹색섬협회(ISLENET) 가입했다. 국제녹색섬협회에는 현재 유럽 지역 50여개 섬이 가입돼 있다. 전남에서는 흑산도나 홍도를 녹색섬 후보지로 검토할 수 있겠다. 기존의 어업과 관광에 녹색 에너지가 어우러지면 '가고 싶고' '쉬고 싶음' 녹색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다. 국제녹색섬협회 가입은 물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조사와 개발 계획 수립을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를 기점으로 전남의 주요 섬을 녹색섬으로 바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홍물스런 고압 송전선을 사라지게 해보자.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김주영

고상한 고등사기

그 사회나 국가는 치명상을 입어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 되어서 일시에 매우 어려운 정황에 직면한다. 그래서 근원지를 찾아보니 정치계의 BBK 추가조작을 필두하여 금융가의 저축은행 비리와 보험사의 부실과 기업인들의 비자금 등의 고등사기 그리고 교육계의 등록금과 종교계의 선거비리와 세습화 또한 예산삭감투쟁 등의 '고상한 사기'라는 별종의 독감 근원지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는 고스란히 상층부에서 쉽게 아래로 전파되어 서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바깥막이로 전락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세상 난리다. 이의 핵심은 결국엔 말하기 거북스럽지만 '돈'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투명하게 살펴보자.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단히 어려

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안에서 정신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질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더도 덜도 아닌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다. 삶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매일 누구나 겪고 있는 개인적이고 틀림없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건들에서 우리는 돈에 관한 자신의 태도 이면에 놓인 진정한 모습을 볼지도 모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일상생활은 물론 사업,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의 모든 부문과 제도에서 탐욕, 자만, 위선, 명에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상식적 반응을 뛰어넘는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사기행각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한국이 낳은 비디오아트에 황제 백남준님이 1984년 6월 23일 35년 만에 고국 땅을 밟고 2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신화를 파는 것이 나의 예술'이라는 제하에서 "... 예술은 사기 중에서도 고등사기다"라는 대목과 더불어 "대중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구절이 색다른 감흥을 주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참 순수한 자유인이라 생각하며 인간다운 범상한 예술인도 각인되었다. 고등사기나 고상한 사기는 어떻게 보면 보통사람은 엄두도 못할 지능적인 범죄로써 매우 파장이 큰 사건이다. 그러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반 대중보다 낫다른 지능을 소지한 공직사회의 지도층과 더불어 신성한 종교계의 지도급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오히려 서민대중의 우려를 자아내는 일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로써 시급히 반성하고 참회해야 할 일이다. 언필칭 지도자는 조력자가 될지언정 방해자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나타나길 백성이 주시하고 있음을 자각하자. <원불교 장성교당 교무>

기고

녹색생활의 지혜로 여름나기



한동희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43%가 가정, 상업, 수송 등 비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산업부문보다 감축비용이 낮고 즉각적인 감축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은 더욱 중요하다. 생활가전기기는 가정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여름철 에어컨 냉방온도를 1℃ 높여 두면 평균 사용일수 55일 기준으로 2000원의 전기료가 절약된다. 적정 냉방온도는 외 부온도와 5℃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하고 평균 26~28℃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에어컨 냉매가 30% 부족할 경우 약 400kWh/년의 전기료가 더 소모되고, 여름철 한두 번 필터를 청소해 주면 3~5%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에어컨 냉매점검과 필터 청소로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아껴보자. 냉장고는 내용물을 60% 정도 채워서 가동할 경우, 어린 소나무 3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CO2와 연간 1600원 정도 전기료를 절약하게 된다. 또 최대한 서늘한 곳에 설치하고 냉장실은 3~5℃, 냉동실은 -15℃ 적정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TV는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조금만 주의하면 감축효과도 크다. 평균 시청시간을 1시간씩 줄여주면 연간 6300원의 전기료가 절감되고 소나무 1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CO2 감축효과가 있다. TV 화면 밝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소비에너지의 30%를 줄일 수 있다. 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화면 밝기를 낮게 조절해 보자. TV의 경우 에너지효율 등급에 따라 연간 2만5000원의 전기료가 차이가 있으므로 에너지효율 등급도 잘 판단해 보아야 한다.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한 번 더 보상받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전남도의 경우 주민은 온라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시점부터 매월 에너지 감축량에 대하여 포인트를 지급한다.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사용량(350kWh)의 10%(35kWh)를 절감할 경우, 연간 총 17만2104원이 절감된다. 이를 포인트와 인센티브로 환산하면 최대 5만4424원이 지급되며, 전기료는 11만8680원이 절약된다. 하반기에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 폭 오를 것이라고 한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서민들 생활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다. 알면서도 불편하다 는 이유로 실천하지 않았던, 또는 몰라서 실천할 수 없었던 녹색생활의 지혜를 올 여름부터 실천해 보고 탄소포인트제에도 가입하여 인센티브도 받아보자. <전남도 녹색성장팀장>

인터넷 대출 경매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얼마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경매방식을 통한 대출로 수익을 쟁겨보라는 메시지가 날아왔다. 주변 지인들도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인터넷 경매방식 대출은 불법요소가 있을뿐더러 원금마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메시지에 속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터넷 대출 경매방식은 먼저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금액과 이자를 인터넷

에 띄운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게 되는 구조이다. 대출가능 금액은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정도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리가 최고 연 50~60%나 되는 경우도 있다. 대출이라지만 사실상 고리 사채여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할만하다. 그러나 간단한 신상정보와 신용등급만을 보고 돈을 빌려주다 보니 투자금을 떼일 위험이 아주

높다. 광주·전남 시민들이 안정적이지 못한 인터넷 대출 투자로 원금을 날리고 신용정보만 유출 당하는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군다나 나중에 개인신용 레드(red)고객으로 분류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촌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